규격의 본질적내용

조 웅 주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살림집을 하나 쓰고 옷을 한벌 해입어도 사회주의생활양식과 시대적미감에 맞는 질좋은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식생활분야에서도 민족의 향취가 풍기면서도 맛있고 영양가가 높고 먹기에도 편리한 여러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리용하면서 윤택하고 문명하게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물질문화생활에서 높아지고있는 인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주자면 결정적으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규격화사업을 적극 개선해나가야 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규격화사업을 적극 개선하여야합니다.》

규격화사업은 규격의 제정과 갱신, 적용과 감독, 평가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진행되다.

규격화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고 그것을 옳게 실현해나가자면 그 기초로 되고있는 규 격에 대한 리해부터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규격이란 반복되는 사물현상의 주요특성에 대하여 광범한 합의밑에 통일적으로 규정 한 가장 합리적인 법적기준을 말한다.

규격은 구체적으로 형, 치수(호수), 기본특성, 기술적요구, 시험법, 포장, 보관, 수송조 건과 학술용어, 기호(자호), 단위, 설계기준, 표기법 등을 전국적범위 또는 부문이나 지역, 기업소범위에서 통일시킨 규정 또는 규범으로 그리고 모든 부문,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법적기준으로 표현된다.

규격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면 그 내용들을 옳게 리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규격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것이다.

이것은 규격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지는데서 선차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다.

규격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정해진 규정이나 규범의 요구에 맞게 정확하면서도 믿음직하게 진행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 자막대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 따라서 규격을 제정하는것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활동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담보해줄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다.

규격의 기준적인 속성은 규격제정과정에 형성된다. 물론 기준적인 속성을 가진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다 규격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기준이 규격으로 되자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여야 하며 최신과학기술성과와 실천적경험의 총화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는 기준이여야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 평가의 기준으로 서의 규격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규격은 다양성, 련관성, 반복성을 가지는 사물현상의 주요특성들에 대하여 제정한 기준이라는것이다.

이것은 규격을 제정하는 대상의 측면에서 규정한 규격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다.

규격이 대상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 규격은 초기에는 사람들의 생활상요구로 되는 단순한 대상으로부터 제정되였지만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에는 그 령역이 더욱 넓어지고있다.

규격은 다양하고 서로 련관성을 가지며 반복되는 사물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화 하고 통일화하며 합리화해나가는 과정에 제정되게 된다.

지난 시기 규격은 주로 공업과 농업, 생산과 건설을 비롯한 경제분야의 기술적측면에서 제기되는 대상에 대하여서만 제정적용되였다면 최근에는 경제생활뿐아니라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로 확대되여 생산과 소비, 류통은 물론 행정사무관리, 환경관리, 봉사관리 등 사회문화관리를 대상으로 사회생활전반에로 그 폭과 심도가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와 함께 규격제정대상은 한 기업소범위로부터 부문 및 지역적범위로, 더 나아가서 국가적범위, 국제적범위까지 확대되고있다.

다음으로 규격은 최대의 사회경제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제정한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규격의 제정목적의 측면에서 규정한 규격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다.

규격제정목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물현상에 대하여 종전의 경험을 총화하고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최대로 없애거나 줄이고 가장 좋은 방안의 반복리용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가장 좋은 질서를 세우고 가장 좋은 효과와 리익을 얻자는데 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효과와 리익은 규격이 가장 좋은 사회경제적효과를 보장하여 리 상적인 결과가 얻어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가장 좋은 질서는 규격을 실시하는 과정 을 통하여 규격제정대상들이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규격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것도 결국은 그것이 사회발전과 경제건설, 인 민생활에서 가장 큰 사회경제적효과 다시말하여 최대의 실리를 얻게 하는 기준이라는것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규격은 과학기술활동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광범한 협의밑에 통일적으로 제정한 기준이라는것이다.

이것은 규격제정사업이 의거하고있는 기초와 방법의 측면에서 규정한 규격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이다.

규격제정의 기초는 과학기술성과와 실천에서 축적한 선진적인 경험이다.

과학기술성과와 실천적인 경험을 비교, 분석, 종합하여 규격으로 제정하는것은 그것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발전을 위한 공고한 기초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규격은 그와 관련된 모든 단위들이 광범히 협의하여 다수가 합의하며 규격화지도기 관이 인정하고 통일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규격제정사업은 특정한 기관이나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격화사업과 관계되는 모든 단위와 전문가들, 규격화지도기관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광범히 토론하고 모두의 인정을 받아 규격내용을 규정하는 사업이다.

규격의 내용들은 규격제정을 비롯한 규격화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와 전문가들의 공동참가, 광범한 토론, 다수의 동의에 기초하여 통과된것으로서 반드시 규격제정의 원칙 과 규격내용의 합리성에 만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규격은 통일적으로 제정되여야 한다.

통일이 보장된 규격은 일정한 사업이나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공인된 평가기준으로 된다.

규격의 통일은 부문이나 지역, 기업소 할것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에서는 반드시 제기된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인 경우에도 제가끔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지역안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똑똑히 세워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출판사들에서도 인쇄물의 글자나 출판물의 여백을 국규에 맞추어 통일적인 규격을 가지고 출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격의 통일을 보장하여야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고 원가타산도 바로할수 있으며 규격의 목적인 전사회적범위에서의 최대의 사회경제적효과를 보장할수 있다.

다음으로 규격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적기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 기술공학적측면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측면에서 규격의 사회경제적성격과 함께 법적성격을 밝힌 본질적내용이다.

규격은 사회생활에 대한 관리, 지휘기능을 수행하는 법규이므로 법적성격을 가진다.

규격은 법규로서 그 적용범위에 따라 전국적 혹은 일정한 분야와 기관, 단체 및 사회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관, 단체 및 사회성원들은 해당 규격 을 알고 목적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규격은 법적의무성을 가진다. 물론 규격에는 법적의무성을 가지지 않고 권고성을 가지는 규격도 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규격이 의무성을 가지고 집행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국가규격은 의무성을 가지고 나머지 규격은 권고성을 가지는 나라들도 있고 모든 규격이 권고성을 가지는 나라들도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 안전, 위생분야를 비롯한 중요한 분야의 규격들은 국가기관이 법조 항에 넣어 법화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 규격들은 법적성격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집행하여 야 할 법규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규격의 본질에는 기준으로서의 규격의 제정대상, 제정목적, 제정기초, 제정방법 그리고 규격의 성격 등이 규제되여있다.

우리는 규격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